

《어서 학교로 가고싶어요》

기다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 초급부 5학년
김사야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학교가 임시휴교로 된지 벌써 두달이 지나려고 해요.
학교가 임시휴교로 된다고 들었을 때 솔직히 나는 기쁘기도 했어요.
(옳지! 학교로 안 가고 싶수 있구나! 무엇을 하며 지낼가!)
그러나 그때 나의 생각은 어리석은것이였어요.
며칠간 나는 집에서 과제를 하거나 자기 일을 보며 지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웬일인지 서운했어요.
휴교로 된다고 들었을 때는 기뻐했는데...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혼자 하는 공부보다 동무들과 함께 하는 공부가 더 즐겁다는것을.
혼자 텔레비를 보기보다 동무들과 숨박꼭질을 하는것이 더 즐겁다는것을.
나는 쉬는 날이 되었다고 기뻐한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동무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 기간에 처음으로 동무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동무들이 무척 그리워졌어요.
마침 그러할 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즈므》를 리용하여 온라인수업을 한다는것이예요.
(그러면 학급동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수 있구나!)
온라인수업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아주 기대되었고 무엇보다 화면상이기는 하나 오래간만에 동무들과 만날수 있는것이 기뻐어요.
함께 하는 수업은 역시 즐거웠어요.
나는 이 상황이 어서 끝나길 바래요.
그래서 동무들과 마음껏 웃고 운동장을 힘껏 달리고싶어요.
《어서 학교로 가고싶어요!!》